

강력 화기로 공포 분위기 조성...5월 항쟁 전국 확산 막기 의도

계엄군은 왜 비무장 시민에게 헬기사격까지 했나

21일·27일 두차례 기총소사...전일빌딩 총탄 자국 다수 발견
도청 진압작전 앞서 거점 확보하고 시민군 기관총 제거 목적
신순용 전 11공수여단 소령 “사기 꺾기 위해 헬기공격 기본”

고(故) 조비오(1938~2016) 신부는 지난 1989년 2월 국회 광주청문회에 출석해 계엄군의 시민에 대한 헬기사격에 대해 증언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28년만인 2017년 전두환(88)씨는 회고록을 통해 “헬기에 대해 모르고 한 소리.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피소당했다.

이번 전두환씨의 광주법정 출두를 계기로 대규모 군 작전 수행중이나 가능한 ‘헬기사격’이 시민을 상대로 벌어진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5·18연구자, 군사 전문가 등에 따르면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자행한 까닭은 5월 항쟁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진압과 공포 분위기 조성, 계엄군의 거점 확보를 위한 지원 등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2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헬기 사격은 최소 1980년 5월21일과 27일 두 차례 있었다.

21일 정오께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표 이후 광주시민들이 무장을 하자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차와 무장

헬기를 동원해 강경하게 총정작전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같은 시각 계엄군은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북구 옛 광주교도소, 서구 옛 상무대 등 광주와 외부를 연결하는 길목을 점거하며 봉쇄작전을 펼쳤다.

계엄군이 봉쇄작전을 펼친 이유는 5월 항쟁이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항쟁이 확산되기 전 강력한 화기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기세를 꺾어 초기에 진압하려는 목적이다. 총탄 자국이 다수 발견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또한 시민군이 모여 있던 장소였다.

61항공단 소속의 한 군인도 “5월 21일 오전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61항공단장에게 ‘지금 당장 출동해서 사격하라’고 명령했다. 61항공단에서 지원 온 수송 헬기 UH-1H 3~4대에는 M60기관총이 설치돼 있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또한 계엄군의 외곽 철수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으로도 분석된다. 육군본부가 1980년 4월 펴낸 ‘소요진압 공중지원방안 연구’에도 “공지협동작전은 초기에 소요군 중을 무력화해 신속한 작전 종결을 보장하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인근 상공에 UH-1H 기종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는 등 소요진압작전 능률 극대화”로 명시하고 있다.

27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사격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금남로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다수의 군 관계자들은 헬기 사격에 대해 진압지역 침투에 앞서 거점확보를 위한 군사작전 매

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7일 새벽 전일빌딩 헬기 사격은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앞서 거점 확보 및 시민군이 옥상에 설치한 기관총 제거 등의 목적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은 앞서 1980년 5월22일께 이정부 103항공대대

장에게 “도청 옥상에 있는 대공화기 진지를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계엄군 사이에서는 “도청과 전일빌딩 옥상에 기관총이 설치돼 있다”는 첩보가 있었고 실제 시민군들은 전일빌딩 옥상에 경기관총을 설치했었다.

신순용 전 11공수여단 소령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엄군 입장에서 는 도

청 진압에 앞서 전일빌딩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군사적 거점이었다”며 “기습작전의 기본은 헬기공격으로 적의 사기를 완전히 꺾은 뒤 강행하는 것이다. 건물에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반격을 막기 위해 서라도 헬기 사격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2017년 9월13일 광주를 방문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들이 동구 전일빌딩을 방문해 헬기 총탄 자국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 특조위는 이듬해 2월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사실상 결론 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

술 마시다 동료에 흥기 난동...불법체류자 체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흥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태국인 A(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13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태국인 B(26)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인근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B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름이 벌어지자 흥기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태국인 C(28)씨 역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흥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흥기를 휘두르다 손가락이 다치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와 C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이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경찰청장 “승리 입대후에도 경찰이 수사”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경찰이 오는 25일 입대를 앞둔 박병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수사를 입대 후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대를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보

필 수는 없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해 수사를 차질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 주체가 군 검찰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 국방부와 협의해 중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했고 (경찰이 수사)해야 될 필요성 있는 사안은 경찰이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 있다”며 “아무래도 (입대) 전보다는 절차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답

변했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를 벌여왔다. 이어 경찰은 1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공개된 카톡 대화내용에 등장한 이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카톡 대화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카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제자 신유용씨 성폭행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여·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유도코치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맛 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시정,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나주서 주택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나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형제로 추정되는 남성 중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쳤다.

11일 나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0분께 나주시 반남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A(56)씨가 숨지고 동생으로 추정되는

B(46)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집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나주=송영철 기자 yacson@

의사 행세 하며 광주 등 전국 대학병원서 절도 행각

○...의사 행세를 하며 광주 등 전국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병원 직원들의 물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서행.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1)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가 보관하던 디지털 카메라 2대, 렌즈 1개를 가방에 넣고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지난 7일까지 광주, 전

남, 전북, 서울 등 전국 7개 대학병원에서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절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막대한 정장 차림에 의복서적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출소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사창리 대지 268㎡ 조용한생활적합 3천만원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재수지 점 1192㎡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7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영광 흥농읍 주거지역 5223㎡ 투자에 최적 금고 5천 매도 1억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영업잘됨 임대중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점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탕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무안을 원룸·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음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나주 금천면 면사무소 인근 땅 704㎡ 상가주택 211㎡ 5억5천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중 12억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431㎡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2천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농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정읍 신대민읍 상업지 1273㎡ 아파트·다세대 적합 은행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71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12억 5천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3층, 38평

■ 전체울수리, 하천방향

■ 주차 3대 무료, 관리비 저렴

■ 보5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보장

■ 즉시입주가능,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 1억2천만원

■ 급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 봄.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3월 8일(금)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장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도하오신다 장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대체 EPC가 가능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업체
-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영업인원 유망하다
 - 태양광 영업 영업 유망하다
 - 태양광 영업인원 유망하다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A부터 Z까지, 세라믹, 태양광 EPC, O&M까지
문의처: 010-0334-07942, sun@donaco.kr

- 태양광 사업주 모집
- 태양광 영업인원 유망하다
- 태양광 영업 영업 유망하다
- 태양광 영업인원 유망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대상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
		영업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신사업개발	R&D	· 신기술 관련 전공자 (공학계)	나
		수업평가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코	라	영업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주
		R&D	R&D	· 요양 관련학과 전공자 유대	

~ 접수처: 010-0334-0792, sun@donaco.kr, 010-0334-0792 ~ ~ 010-0334-0792